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Volunteering is My Happiness



글 | 張 今 錫
(Chang, Keum Suk)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농협중앙회 총무부 기술역,
E-mail : jgs2241@nonghy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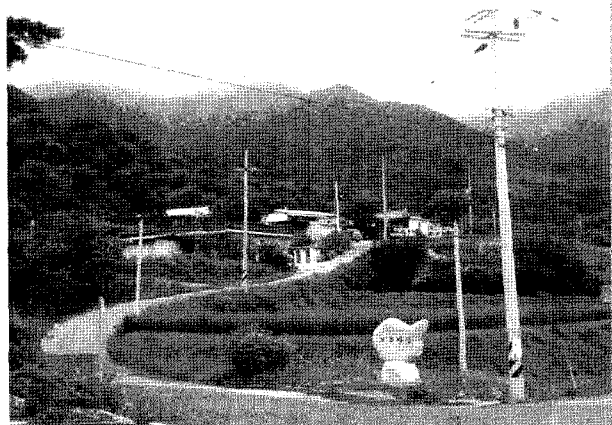
농협중앙회(총무부-기술지원봉사단)에서는 2005년 6월부터 매월 농촌에서 생활이 어려운 신 분들의 낡은 주택을 무료로 수리해 드리고, 동네 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기술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각 도별로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할 내용을 확인한 후, 자재를 준비하고 봉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전남 구례군으로 간다고 하기에 우리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 기술지원봉사에 지원하였다.

새벽 5시에 자명종을 맞춰 두고 잤지만 설렘에 오히려 일찍 일어났다. 초등학생이 소풍가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식구들에게 눈치 보일까봐 혼자서 머쓱하게 괜한 표정관리를 해야 했다.

이른 시간이라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지만 폭우가 내려서 조심운전을 해야 했다. 봉사단장은 못내 조바심이 나서 동네 이장에게 전화를 드려 보니 현지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러웠다.

현장 도착시간과 작업일정 때문에 아침식사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모동마을

는 버스 안에서 김밥과 빵으로 먹어야 했다. 버스는 익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 전주, 남원을 거쳐 구례로 향한다. 섬진강을 따라 내려 가다가 화개장터에서 다리를 건너 백운산 자락으로 한참 산길로 올라간다. 마을 입구의 “봉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천리 길 여행에 지친 피로가 확 풀리는 걸 느꼈다. 마을에 도착하니 열시가 넘었었다.

‘해발 400미터. 우람한 산세, 울창한 산림, 깊은 계곡,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동네’ 그야말로 별천지가 산속에 숨어 있었다.

윤근석, 원용식 이장님, 동네 어르신들과 지역농협 관계자께서 미리 나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맛과 멋과 예절의 애향 구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조합장님의 말씀도 듣고, 농협에서 준비해 온 생활용품들 동네 이장님에게 기증한 후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작업조를 편성하고 자재와 공구를 배분해서 각자 작업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네 이장님께서서는 멀리서 오느라고 시장할까봐 새참을 준비했다면서 남도지방에서 큰 행사 때나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인 기정떡(술떡)을 나눠 주셨다. 일찍 출발하느라 차안에서 행동식으로 아침식사를 해서 시장하기도 했지만 남도의 별미는 과연 꿀맛이었다.

작업을 시작 하려고 자재박스를 열어보니 페트병 생수가 5병이나 들어 있었다. “현지에서는 물 한모금도 신세지면 안된다”는 봉사단의 순

수하고 깨끗한 의지와 실천이 보이는 것 같아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우리 조는 혼자 사시는 최공례 할머니댁의 전기, 수도, 전기장판 교체와 뒤란 벽체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아 전등스위치도 적당히 낮춰서 설치하고, 군데군데 콘센트도 설치해서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드렸다.

한참 작업 중에 「별떼다!!」하며 목공실장이 뒤란에서 뛰쳐나왔다. 스프레이 모기약을 뿌려서 말벌 떼를 진압하고 나서야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 농촌 주택들은 더러 음습하고, 악취도 나고, 먼지구덩이 같은 열악한 환경들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곳은 날씨와 갖가지 해충 때문에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들을 했다.

「에마리오? 머 쪼깐 부탁허고 시픈디 어찌께라」

「네. 할머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우리집 정제 까스가 불이 안써져」

「그래요? 떡이 어디세요?」

「요 우게 빠런 도단집 인디」

「알겠습니다. 이집 작업 미치고 나서 고쳐 드릴게요」

「부탁허요 잉!」

봉사내용을 취재차 나온 농협방송 PD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내게 묻는다. 나는 유능한 통역사처럼 우쭐대며 해석을 해줬다.



▲ 농협기술지원 봉사단

「어떻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아세요?」

「나가 여그서 찌끔 떨어진 벌교가 고향이랑
께!!」

점심을 먹고 잠깐 여유를 내서 동네구경을 했
다. 동네를 거쳐 흐르는 계곡이 수도권에 있었
다면 아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싶
을 정도로 멋있고 깨끗했다.

여럿이 힘을 합쳐 작업을 하니 금새 마무리가
되었다. 작업을 끝내고 나서 가재도구도 정리
하고, 집안 청소를 해드렸다. 기술지원봉사가
처음인 총무팀 서무과장은 본인도 기술을 배워
서 기술지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부러워한다.

그래요. 봉사를 하기 위한 자기계발. 얼마나
멋질까? 나도 미용기술을 배워서 어르신들 머
리도 다듬어 드려 볼까나?

비가 오기는 했지만 무사히 작업을 마친데 대

하여, 지역의 농협 관계인들께서 끝까지 남아서
뒷바라지를 해주신데 대하여, 배폰 것 보다 얻
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 동네 인심에 대하여
봉사단장은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거석마을 윤근석 이장님께서서는 “형편이 어려
워 주택보수는 꿈도 못꾸고 있는데 농협에서 배
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내내 고마
워 하셨다.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면역기
능이 강화되어 건강해진다는 것이 ‘마더테레사
효과’ 라고 한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마냥 행복하다!!

(원고 접수일 2008년 10월 28일)